

성인장애인이 지각하는 가족기여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Perceived contributions and self-efficacy of the adults with disability

김 정 은*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

조 상 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김 혜 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인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조 태 흥****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박사과정)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성인장애인이 지각하는 가족에 대한 기여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전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28명의 응답 결과를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중간값을 높게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경제적 가족기여는 중간값에 가까운 수준에, 도구적 가족기여와 정서적 가족기여는 중간값 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가족기여 만족감은 중간값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인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경제적 가족기여, 정서적 가족기여, 가족기여 만족감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복지 차원에서의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성인장애인, 가족기여, 자기효능감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검토

III. 연구방법 및 내용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논의

* 제1저자(cnuswkim@cnu.ac.kr)

** 교신저자(sesecho@koddi.or.kr)

*** 공저자(hkim@inu.ac.kr)

**** 공저자(feelmen2003@naver.com)

I. 서론

인간의 성장과 발달이 심화되는 성인기는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능력과 타인과의 상호관계가 집중되는 시기이다. 이 때문에 Erickson의 심리사회발달이론에서는 성인기의 중요한 과업으로 생산성을 언급하며, 일과 가정 내 기능을 수행하고 타인을 돌보는 활동을 통해서 생산성이 획득되고 생산성 획득에 실패할 경우 자기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강상경, 2011).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타인과의 친밀감과 성숙한 사회적 관계를 기초로 한 성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효능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이인정·최혜경, 2008).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에 대한 역량과 기대가 간과되는 집단이 있다. 이들은 바로 신체·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인장애인들이다. 성인이 된 장애인들은 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타인으로부터의 돌봄이 필요한 의존적인 대상이라는 고정관념 속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우리 사회는 성인장애인을 영구적인 돌봄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비장애인에게 부여되는 타인에 대한 돌봄이나 가족에 대한 기여 역할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돌봄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항상 돌봄을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와 달리 서구에서는 일찍이 노년기 어머니의 지지 자원으로서 성인장애인을 강조해 왔다(Greenberg, 1995). 이에 성인장애인이 노인부모에게 정서적인 말벗이 되거나 혹은 가족에게 경제적, 도구적인 기여나 지원을 제공하는(김고은, 2010; 김학령, 2001; 이유리, 2008; 이현숙, 2007; Grant & Ramcharen, 2001; Greenberg, 1995; Greenberg, Seltzer, & Greenley, 1993; Heller, Miller, & Factor, 1997; Horl, 1989) 역할은 물론 가장으로서 정서적, 경제적인 역할(김정옥, 2015)과 비장애 성인자녀를 대신해 병약한 노인부모를 돌보는 일차적인 부양자의 역할도 보고되고 있다(최희경, 2012). 하지만 국내 대다수의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한 장애인 관련 연구에서조차 이들을 돌봄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반대로 이들을 가족에게 기여를 제공하는 돌봄 제공자로서 바라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국내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김정은·조태홍, 2015; 김희정, 2000; 최희경, 2012).

성인장애인의 이타적 행동 및 경험은 타인 뿐 아니라 성인장애인 스스로에게도 효능감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과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예로 정신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연구한 최명민(2004)은 이들의 활동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중요한 경험이라 설명하였으며, 김미영(2014) 역시 이들의 동료지지 활동이 자기효능감에 기여한다고 설명하였다. 김문근(2009a)은 성인장애인이 경험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장애인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이들의 역할정체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여기서 역할정체성이란 역할과 관련된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역할수행에 대한 자기평가와 사회적 기대가 내면화된 자기개념의 일부로 볼 수 있다(Stryker, 2000).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부여되고 기대되는 역할을 본인이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에 대한 자기평가가 포함되어 형성되는 자기개념의 일부로 이는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기대 및 신념을 가리키는 자기효능감(Bandura, 1986; 양정빈·이종환 재인용, 2011)이 사회적 관계이라는 장(field)에서 발현되었을 때 역할정체성의 모습을 띠다고도 볼 수 있는데, 김문근(2009a)의 연구결과에 빗대어 살펴본다면 성인장애인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수행 경험은 이들의 자아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성인장애인의 가족기여를 살펴본 해외 학자들 역시 장애인의 가족 내 활동 및 기여가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자아존중감 유지 및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 고취를 위해서 이들의 가족 내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을 권장하였다(Greenberg, 1995; Greensberg, Greenley, & Benedict, 1994).

목표지향적인 삶의 방식이 추구되는 현 사회에서 성인장애인은 자기 스스로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심리적 좌절과 가족 및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자의적, 타의적 시각으로 인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런 낮은 자기효능감은 성인장애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돌봄 부담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성인장애인의 삶 개선과 돌봄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인 가족 위주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직접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의견수렴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성인장애인의 가족기여 경험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장애인의 가족기여 경험과 이들의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성인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성숙을 가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가족기여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성인장애인의 가족기여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및 문헌검토

1.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사회교환이론은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개인이건 집단에 속해 있건 간에 그들은 상호관계 속에서 보상(rewards)을 최대화하고 대가(costs)를 감소하려는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Berscheid & Walster, 1969). 즉, 인간관계에서 보상이 대가보다 클 때에는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지만, 반대로 대가가 보상보다 클 때에는 관계가 나빠지거나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Blau, 1964; Byrne, 1971). 따라서 더 많은 도움이나 지지를 받은 개인들이 그렇지 못한 개인에 비해 그들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Pruchno, 2003). 하지만 사회교환이론은 보상이 더 컸던 개인이 항상 그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산출물을 생산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사회교환이론의 핵심이 권력과 의존이기는 하지만

(Molm, 1991) 사람들은 호혜적이고 균형(balance)잡힌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이다(Call, Finch, Huck, & Kane, 1999).

가족관계는 가족 외 다른 관계와 달리 호혜성(reciprocity)이 장기간 동안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Call et al., 1999). 하지만 사회교환이론의 가정이 가족 외의 일반 관계보다 약한 것이지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족 내 돌봄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의 친절에 대한 보답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Finch & Mason, 1993). 이 균형이 깨지면 돌봄 대상자에 대해 가족들은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Call et al., 1999). 뿐만 아니라, 단일 방향의 돌봄에 대해 장애인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마치 나이가 많이 들어 절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더 이상 가족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주지 못할 때 상당한 불편함을 느낀다는 Lustbader(199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이 사회교환이론은 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의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한다. 최근까지 진행된 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그들을 돌보는 가족의 입장에서 피돌봄자로 간주되어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예: 이영미, 2014; 이원남·김경신, 2017), 돌봄 부담(예: 이유리·최희철, 2017; 조현미·최은정, 2017), 장애가족에 대한 지원(예: 이은미·백은령, 2010; 홍주희·이숙향, 2017) 등에 관한 연구가 다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 기여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편향된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교환이론은 상호작용 관계에서의 호혜성과 균형을 강조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가족 내에서의 역할 즉, 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기여들에 대해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장애인은 가족으로부터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족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와 가족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돌봄의 양은 다를 수 있지만, 심리적 공정성(psychological equity) 개념은 타인과의 관계가 공평하거나 공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관계가 평등할 필요는 없으며 개인의 인지과정에 의해 공정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White & Klein, 2008). 이와 같이 사회교환이론과 심리적 공정성 개념은 가족 내에서의 장애인의 역할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고 돌봄 관계에서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과 가족 간 관계에서 성인장애인의 가족기여에 대한 인식과 만족감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2. 역할정체성이론(Role-identity theory)

역할정체성이론은 역할과 관련된 자아개념인 역할정체성으로부터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역할정체성이론의 핵심 내용은 개인은 역할과 관련된 상호작용관계망에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하면서 역할에 관한 사회의 기대와 역할수행에 관한 자기평가(self-meaning)를 내면화하게 되어 역할정체성(role identity)이라는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Stryker, 2000, Stryker & Burke, 2000; 김문근 재인용, 2009b). 이때 사회의 기대

와 자기평가가 일치하게 되면 개인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통제감 등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Burke, 1991; 김문근 재인용, 2009b). 정체성은 상호관계 속에서 주장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역할은 인생의 목적, 의미, 방향, 지침을 제공하며, 개인으로 하여금 의미 있고 방향성 있는 존재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Thoits, 1983). 이렇듯 의미 있고 유목적적이며 질서정연한 행동은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Siebert, 1974) 역할이 부여되고 인정될 때 개인은 심리적인 보호를 느낀다(Thoits, 1983).

성인은 아동과 노인 사이에 해당하는 시기로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만 18세에서 만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넓은 스펙트럼을 포함한다. 따라서 주요 과업은 대학입학 및 졸업, 취업, 결혼, 육아, 은퇴 등 다양하다. 특히 이 시기는 생산성이 극대화 되는 시기로 성인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기대는 근로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성인장애인의 경우, 전체인구에 비해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생산성이 낮고(고제훈·김호진·김성천·양수정·최종철, 2014) 특히 중증 성인장애인 경우 가족 내에서도 돌봄 대상의 위치에 있어 역할정체성이론에서 설명하는 역할에 관한 사회의 기대와 역할 수행에 관한 자기평가는 불일치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로 부정적 자기개념이 내면화되어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성인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기여와 지지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진행되면서(김정은·조태홍, 2015; Ramcharen, 2001) 성인장애인의 가족 내 역할에 대한 탐색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역할정체성이론에서 말하는 가족 내에서 기대되는 역할기준과 이에 대한 이행 가능성, Erickson의 심리사회발달이론에서 말하는 타인을 돌보는 활동을 통한 생산성 획득의 가능성(강상경, 2011)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인장애인의 가족 내 긍정적 역할과 기여 활동, 그리고 심리적 건강 요인으로서 대표될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3. 성인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Bandura, 1995)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으로 상황적이면 서도 구체적인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한다(최희정·이인수, 2009)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은 실제 개인이 가진 기술이나 능력보다는 그것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장애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취될 수 있는데, 자신의 직접적인 성공 경험, 자신과 비슷한 모델이 성취하는 것의 관찰, 타인의 언어적인 격려나 설득, 자신의 생리적이고 정서적인 상태에 대한 해석 등이 있다(Bandura, 1986; 양정빈·이종환 재인용, 2011). 때문에 성인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재활의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박현숙·배성우·김이영, 2008; 전영신, 2014).

하지만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장애인을 가족 또는 사회 내 역할을 수동적으로 간주함으로써 장애인이 본인의 역량을 통해 가족 또는 사회에서 기여하는 부분 보다는 공식, 비공식 지원체계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이었다. 특히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관한 개입 연구(박병선 외, 2014; 박현숙 외, 2008; 송근영·정연택, 2011)가 가장 많이 연구되고 왔다. 이외에도 가족의 지지 또는 가족탄력성과 같은 가족 돌봄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도 있었으며(예: 최희정·이인수, 2009) 사회적 지지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하는 연구도 있었다(전영신, 2014).

반면에 타인을 돌보거나 지지하는 등의 이타적 행동이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일부 도출되었다. 예로 최명민(2004)과 김미영(2014)은 정신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과 동료지지 활동이 이들의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이들이 이타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회와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이들의 역량강화와 직결되어 있기에 최근 들어 이들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연구들은 여전히 이들을 피돌봄자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및 가족 환경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타적 행동에 대해 연구한 최명민(2004)과 김미영(2014)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장애인이 주체가 된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인장애인을 조사대상자로 참여시키면서 이들의 일상생활 속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기효능감을 탐색하는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4.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성인장애인의 가족기여

사전적인 개념으로 돌봄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일’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러한 돌봄은 행위의 주체, 관심의 대상, 관계에 대한 다양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돌봄 제공자와 돌봄 대상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차별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김희강·나상원 역, 2014). 다시 말해, 아동,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이 일부의 돌봄 수혜자는 주로 병약하거나 무기력한 의존적인 돌봄 대상자로 단정되어 왔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와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돌봄 대상자를 스스로 돌볼 능력이 없는 의존적인 사람으로만 규정해 왔다(김희강·나상원 역, 2014). 이 때문에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관여(involverment)가 주로 연구되어져 왔으며(장미희·최영, 2011)장애인을 가족 내 ‘돌봄 대상자’ 또는 ‘환자 역할(sick role)’을 가진 집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의 가족 내 돌봄과 관련하여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 즉, 장애인의 역량과 장애인의 가족 내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돌봄 관계를 살펴보는 시각이다. 실제 국외 연구들을 보면, 긍정적 기여(positive contribution; Hastings, Beck, & Hill, 2005), 가족에 대한지지(supports to their family, Greenberg, 1995; Heller et al., 1997) 등의 개념으로 장애자녀의 기여행위들이 명명되어 왔다. 소수이지만 국내 연구들에서도 기여(contribu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장애인의 가족 내 긍정적인 역할에 주목해 왔는데, 주로 일상생활 속에서 재정적 도움, 가사일, 대

화 및 정서적 위로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를 기여로 정의하거나(김고은, 2010; 김정은·조태홍, 2015; 김정은·최해경, 2015) ‘돌봄’ 개념의 차원에서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기여가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성인장애자녀와 부모간의 관계를 교환이론이나 공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상이나 호혜성으로 검증되고 있는 추세이다(Grant, Ramcharan, McGrath, Nolan, & Keady, 1998; Pruchno, 2003; Seltzer, Greenberg, Krauss, & Hong, 1997). 해외에서는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부터 돌봄에 대한 양가감정, 돌봄의 상호호혜성과 같은 영역이 확대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기여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지속되어 왔는데 주로 국외 문헌을 통해 검토되어졌고 국내 문헌은 주로 장애인의 부양자를 중심으로 조사된 정도에 그치고 있다(김고은, 2010; 김정은·최해경, 2015; 김희정, 2000). 국내외 연구들에 따르면, 인지장애를 가진 자녀는 노년기 부모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가사를 돕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Grant et al., 1998; Heller et al., 1997). 김희정(2000)은 성인정신장애인의 기여 활동이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가족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이나 보호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감소시켜 주는 자원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성인장애인은 가족에게 있어 항상 부담의 원천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다양한 기여를 일부분 제공하면서 가족으로부터의 인정이나 친밀감은 물론 자신 스스로 긍정적인 존재감이나 효능감을 갖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인 기여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기여를 수행하고 있는 스스로의 확신이나 만족감 역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된다. 하지만 성인장애인의 가족기여 만족감은 가족기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한계로 일부의 질적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일부 유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과 조태홍(2015)은 성인장애인들은 ‘가족기여’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이 가족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 기여하고 있다거나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을 도와주거나 돌보는 활동이 자신의 도리이자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성인장애인의 경우 가족에게 유용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스스로의 만족감 속에서 자신 스스로 부양자라고 칭할 만큼 높은 자신감과 보람을 표현하고 있으며, 역부양의 처지에 놓인 가족도 이를 높이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부양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성인장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도 존재한다. 최희경(2012)은 노인부모의 ‘부양자’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 성인장애인을 살펴본데, 57세이며 미혼인 2급 장애인은 92세의 어머니와 동거하며 10년간 돌보고 있으며, 다른 한 명은 48세, 미혼의 3급 장애인으로 시각장애와 치매가 있는 81세의 어머니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었다. 이들은 다른 비장애 성인자녀와 달리 오랫동안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자식 된 당당한 دور으로 ‘아들 역할’과 ‘부모님에 대한 보은’이라는 인식 하에 다른 비장애인자녀보다 노모에 대한 부양을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김정옥(2015)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하고 있는 54세, 지체(척수)장애 1급의 남성 장애인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를 통해서 중도장애인으로서의 삶의 변화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연구대상자가 교통사고로 중도장애인 된 이

후 장애수용에 대한 역동적인 노력과 자기정체성을 찾기 위한 과정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믿음, 가족과의 상호작용적 관계가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경제적 기여와 사회활동, 가족에 대한 정서적인 표현, 가족과 주변인들의 지지 등으로 자신감, 자기 확신과 재활의욕도 갖게 되었다.

종합해보면, 성인장애인의 가족기여에 대한 연구가 제한된 현실에서 성인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비교적 긍정적인 부분도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성인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는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가족기여 요인과 가족기여 제공에 대한 만족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인구사회학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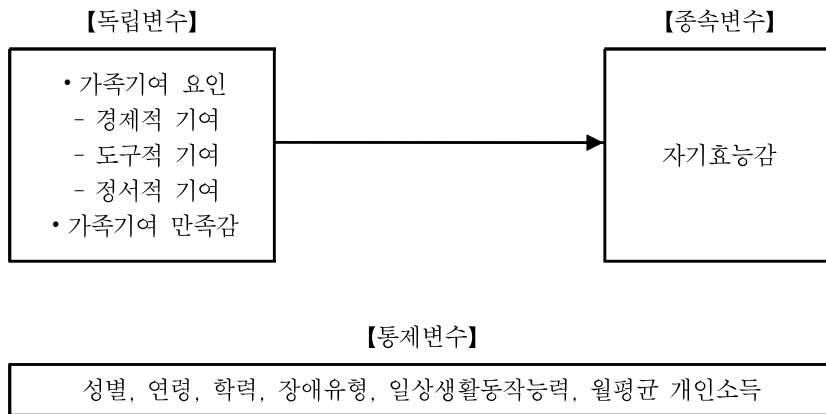
성인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장애유형, 소득수준, 경제활동 여부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보고되고 있다(김정옥, 2015; 김정옥·강차선·박정환, 2016; 임인택, 2012; 전영신, 2014). 구체적으로 성인장애인들의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업난이도로 구성된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김정옥(2015)은 여성 장애인인 경우 남성보다 어려운 과업도 스스로 선택하려는 선호도인 과업 난이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과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경우 중졸 이하 보다 자신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경제력 또는 경제활동은 자기효능감은 중요 요인이다(김정옥, 2015). 반면, 장애인의 신체효능감의 경우 중졸 집단이 고졸이나 대졸 이상의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인택, 2012).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과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신체, 정신적 장애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김정옥, 2015) 일상생활에서의 일상생활 동작능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석진·강유석·한동기·양한나,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할정체성이론과 공정성이론,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의 '영원한 어린 아이' 이자 돌봄 부담의 대상자로만 머물러 있는 성인장애인에 대한 수동적이고 차별적인 시각의 탈피를 탐색적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가족기여에 대한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가족기여와 같은 다양한 가족기여 요인과 이에 대한 만족감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모형

성인장애인이 지각하는 가족기여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대상과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 등급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중 가족과 동거 혹은 비동거 하면서 가족과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이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며 본 조사의 목적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 대상의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대전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장애인부모회,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자조모임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 뒤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유의표집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윤리적 고려사항 등을 설명하였으며, 연구대상자가 응답이 불편하거나 더 이상의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장애 특성에 맞춘 편의제공 등의 연구윤리를 최대한 준수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연구자와의 일대일 대인면접이나 자기보고식의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150부의 설문지 가운데 부실한 응답과 결측치를 제외하고 128개의 사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3. 변수의 측정

첫째,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은 Tipton과 Worthington(1984)이 개발하고 양숙미(2000)가 정신 지체 성인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적용한 'The Generalized Self-Efficacy Scale'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어려운 과제에 대한 태도, 과제수행에서 느끼는 어려움, 자신감, 문제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좌절감, 불편함 등에 관한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42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인 성인장애인이 지각하는 가족기여는 가족기여 요인과 가족기여 만족감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성인장애인의 가족기여 요인은 Greenberg 외(1994)가 사용한 척도(Patient's Contribution to the Family)와 정신장애인의 가족기여에 관한 이유리(2008), 김정은과 최해경(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참조하여 수정보완 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생활비나 용돈, 선물 제공, 주택 마련, 재산 증식 등의 경제적 측면의 가족기여 3문항, 식사, 청소 등의 집안일 거들기나 가족 간호나 학습 등과 같은 도구적 가족기여 5문항, 가족에게 위로나 칭찬, 대화 등의 정서적 기여 4문항의 총 12문항이며,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영역별 또는 총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여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의 전체적인 신뢰도 계수는 .897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가족기여는 .841, 도구적 가족기여는 .858, 정서적 가족기여는 .89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인장애인의 가족기여 만족도는 Strawbridge(1991)가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가 인지하는 긍정적인 경험에 관하여 개발한 척도(Caregiving Satisfaction Scale, CSS)를 Son 등(2000)이 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여 성인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보완 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가족 돌봄 제공으로 인한 삶의 의미, 참을성, 가족을 돕는 기술을 터득, 가족과의 친밀성, 뿌듯함 등의 긍정적인 만족감에 관한 내용이며, 총 16개의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여 만족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75로 나타났다.

셋째, 통제변수는 성인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만), 학력(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 유형), 일상생활동작능력, 월평균 개인소득을 측정하였다.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유형(1), 정신적 장애유형(0)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일상생활동작능력은 신체적인 일상생활 동작능력 13문항,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능력 6문항에 관한 수정된 Barthel 지수(Shah, Vanclay, & Cooper, 1989)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스스로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전부 해준다'로 측정하여, 각각의 문항마다 상이한 점수를 부여 후 총 합산한 점수가 100점을 기준으로 0-20점은 전적인 의존 상태, 21-60점은 심한 의존, 61-90점은 중도 의존, 91-99점은 약한 의존, 100점은 독립적인 상태로 판정한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97로 나타났다. 월평균 개인소득은 최근 6개월 간 근로 소득, 공공 및 민간 보조금, 기

타 등의 소득을 총합한 액수이며, 만 원 단위로 측정하였다. 이외에도 가족기여를 제공하는 성인장애인의 기술적인 특성과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성인장애인이 가족 중에서 가장 많이 돌보고 있거나 도와주고 있는 가족기여 대상(배우자, 부모, 자녀, 기타 가족), 기여하고 있는 가족과의 동거 여부도 조사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수행하였다. 첫째, 각 주요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로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주요 변수의 특성과 차이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들 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를 검토하였다. 넷째, 성인장애인이 지각하는 가족기여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성인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이 86명(67.2%), 여성이 42명(32.8%)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40.30세($SD=9.97$)였다. 학력은 고졸과 대졸 모두 각각 53명(41.4%)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60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가 36명(28.1%)으로 뒤를 이었다. 일상생활동작능력은 평균 85.78점($SD=16.69$)으로 중도 의존 상태로 확인되었다. 월평균 개인소득은 129.00만원($SD=78.05$)이었다.

특히, 성인장애인이 가족 중에서 가장 많이 돌보고 있거나 도와주고 있는 가족기여 대상으로 부모가 75명(5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는 27명(21%), 자녀와 기타는 각각 13명(10.2%)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장애인은 기여 대상인 가족과 대부분 동거하고 있었다(89명, 77.4%). 이는 그동안 성인장애인의 가족 기여에 대한 검증이 주로 일부 장애유형의 성인장애인과 노인부모에 대한 기여로 제한되어 온 현실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비록 소수이지만 보다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유형을 가진 성인장애인과 이들의 배우자나 자녀, 기타 가족에게도 폭넓게 기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인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성인기 가족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다양한 부양자 또는 조력자로서의 역할과 역량이 가능한 긍정적인 존재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128)

구 분		빈도 (명)	비율 (%)	구 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86	67.2	연령	범위	20-73세	
	여성	42	32.8		평균(SD)	40.30세 (9.97)	
학력	중졸 이하	22	17.2	장애 유형	지체장애	60	46.9
	고졸	53	41.4		뇌병변 장애	36	28.1
	대졸	53	41.4		정신적 장애	32	25.0
일상생활 동작능력	범위	16-98점		월평균 개인 소득	범위	0-400만원	
	평균 (SD)	85.78점 (16.69)			평균 (SD)	129.00만원 (78.05)	
가족 기여 대상	배우자	27	21.1	가족 동거 여부	동거	98	76.6
	부모	75	58.5				
	자녀	13	10.2		비동거	30	23.4
	기타 가족	13	10.2				

2. 주요 변수의 특성

독립변수인 성인장애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가족기여와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은 〈표 2〉와 같다. 먼저 전반적인 가족기여는 평균 32.17점(SD=6.47)으로 나타났으며, 중간값 30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가족기여는 평균 7.39점(SD=2.39)으로 나타났으며 중간값 7.5점에 가까운 수준에, 도구적 가족기여는 평균 13.15점(SD=3.39)으로 중간값 12.5점 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정서적 가족기여는 중간값 10점 보다 약간 높은 평균 11.68점(SD=2.21)으로 나타났다. 가족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감은 평균 49.54점(SD=9.37)이며, 중간값인 40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은 평균 49.49점(SD=7.88)으로 중간값 45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특성

(n=128)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가족기여	16	48	32.17	6.47
경제적 가족기여	3	12	7.39	2.39
도구적 가족기여	5	20	13.15	3.39
정서적 가족기여	5	16	11.62	2.08
가족기여 만족감	29	64	49.54	9.37
자기효능감	21	71	49.49	7.88

3. 성인장애인의 가족기여, 가족기여 만족감, 자기효능감의 차이

성인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체 가족기여, 가족기여 만족감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성인장애인의 성별과 학력 수준, 가족기여 대상에 따른 가족기여와 가족기여 만족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기여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3.004$, $p<.05$), 50대 이상의 성인장애인의 가족기여는 네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상생활동작능력에서는 의존 상태가 약한 경우($F=12.187$, $p<.001$), 월평균 개인소득이 높은 경우($F=4.735$, $p<.01$), 기여대상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t=2.401$, $p<.05$) 성인장애인의 가족기여 수준은 가장 높았다. 가족기여 만족감은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유형 보다는 신체적 장애유형의 성인장애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016$, $p<.05$). 또한 가족기여와 마찬가지로 성인장애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에 따라 가족기여 만족감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908$, $p<.001$). 성인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연령($F=3.004$, $p<.05$), 장애유형($F=-2.511$, $p<.05$), 일상생활동작능력($F=12.187$, $p<.001$), 월평균 개인소득($F=4.735$, $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 중 성인장애인의 전체적인 가족기여와 가족기여 만족감,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보이는 공통 요인으로 월평균 개인소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인장애인의 경제력을 강조한 선행연구 결과(김정옥, 2015)와 마찬가지로 성인장애인뿐만 아니라 성인장애인의 가족 내 역할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어 성인장애인의 경제적인 활동이나 지원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이 더욱 촉구될 필요가 있다.

〈표 3〉 성인장애인 가족기여, 자기효능감의 차이

(n=128)

구분	빈도(%)	가족기여		가족기여만족감		자기효능감	
		평균(SD)	t/F	평균(SD)	t/F	평균(SD)	t/F
성별 여성	42(67.2)	32.04(7.18)	-.151	50.66(13.41)	.162	48.50(7.64)	-.995
남성	86(32.8)	32.23(6.14)		50.30(11.14)		49.97(7.99)	
연령 20대	20(15.6)	28.30(5.35)	3.004*	49.90(16.59)	.276	28.30(.35)	3.004*
30대	35(27.3)	33.08(5.88)		49.42(12.80)		33.08(5.88)	
40대	54(42.2)	32.66(5.72)		51.53(10.05)		32.66(5.72)	
50대 이상	19(14.8)	33.15(9.13)		49.63(9.55)		33.15(9.13)	
학력 고졸 이하	75(58.6)	32.06(6.31)	-.218	50.30(10.02)	-.130	48.80(7.18)	-1.184
대졸 이상	53(41.4)	32.32(6.75)		50.58(14.21)		50.47(8.75)	
장애유형 정신적	68(53.1)	31.94(6.15)	-.428	48.45(11.52)	-2.016*	47.88(7.92)	-2.511*
신체적	60(46.9)	32.43(6.86)		52.65(11.98)		51.31(7.48)	
일상생활동작능력			12.187***		2.668		12.187***
심한 의존 이상	12(9.4)	27.00(5.22)		46.66(8.15)		27.00(5.22)	
중도 의존	46(35.9)	30.10(5.1)		48.13(12.93)		30.10(5.15)	
약한 의존 이하	70(54.7)	34.41(6.55)		52.57(11.38)		34.41(6.55)	

월평균 개인소득 50만원 이하 51-100만원 101-150만원 151만원 이상	21(16.4) 31(24.2) 36(28.1) 38(29.7)	29.42(7.06) 30.29(5.89) 33.22(6.59) 34.65(.38)	4.735**	43.23(13.40) 47.64(8.78) 51.11(10.16) 56.73(11.89)	7.908 ***	29.42(7.06) 30.29(.89) 33.22(6.55) 34.65(.38)	4.735**
가족기여 대상 배우자 부모 기타 가족원	27(21.1) 75(58.5) 26(20.4)	34.18(8.76) 31.16(4.98) 33.00(7.17)	2.491	49.51(9.99) 49.61(11.86) 53.69(13.52)	1.241	34.18(8.76) 31.16(4.98) 33.00(7.17)	2.491
가족 동거 비동거	98(76.6) 30(23.4)	32.91(6.64) 29.73(5.29)	2.401*	50.74(11.56) 49.36(13.01)	.554	49.65(6.19) 48.96(6.86)	-.416

*p<.05, **p<.01, ***p<.001

4. 성인장애인이 지각하는 가족기여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인장애인이 지각하는 가족기여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에 앞서 변수들의 정규성 가정의 만족여부와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했다. 모든 변수에서 왜도와 첨도가 각각 2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만족했다. VIF는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표 4>와 같이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194 ~ .621로 모두 .85 미만으로 나타나 높은 다중공선성을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Kline, 2005).

〈표 4〉 변수의 상관관계

(n=128)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047	1									
3	.148	-.267**	1								
4	-.077	.012	.323**	1							
5	-.034	.007	-.112	-.198*	1						
6	.010	.229**	.262**	.301**	.024	1					
7	.059	.105	-.063	.094	.244**	.332**	1				
8	.108	.068	.196*	.122	.140	.584**	.540**	1			
9	-.022	.078	-.165	-.085	.540**	.142	.472**	.463**	1		
10	-.046	.196*	.106	.117	.194*	.366**	.598**	.548**	.523**	1	
11	.088	.063	.105	.218*	.138	.488**	.621**	.620**	.347**	.570**	1

*p<.05, **p<.01

주: 1. 성별(1=남성, 0=여성), 2. 연령, 3=학력(1=대졸, 0=기타), 4. 장애유형(1=신체적 장애, 0=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 5. 일상생활활동능력, 6. 월평균 개인소득, 7. 경제적 가족기여, 8. 도구적 가족기여, 9. 정서적 가족기여, 10. 가족기여 만족감, 11. 자기효능감.

다음으로 성인장애인이 지각하는 가족기여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첫째, 성인장애인이 지각하는 가족기여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F=16.836$, $p<.001$), 설명력은 55.9%로 나타났다. 둘째, 성인장애인의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가족기여 요인과 가족기여 만족감 변인 중 경제적 가족기여($\beta=.293$, $p<.01$), 정서적 가족기여($\beta=.247$, $p<.01$), 가족기여 만족감($\beta=.347$, $p<.001$)이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성인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가족기여, 정서적인 가족기여, 가족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감이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성인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는 가족기여 만족감, 경제적 가족기여, 정서적 가족기여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통제변수 중 신체적 장애유형의 성인장애인인 경우에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146$ $p<.05$).

<표 5> 성인장애인이 지각하는 가족기여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n=128)

구분		자기효능감			
		B	SE	β	t
통제변수	성별(1=남, 0=여)	1.848	1.038	.112	1.781
	연령	-.047	.054	-.058	-.872
	학력(1=대졸, 0=기타)	-1.183	1.130	-.075	-1.047
	장애유형(1=신체, 0=정신)	3.046*	1.448	.146	2.103
	일상생활활동능력	.010	.034	.022	.310
	월평균 개인소득	.007	.008	.069	.823
독립변수	경제적 가족기여	.969**	.294	.293	3.294
	도구적 가족기여	-.122	.213	-.053	-.573
	정서적 가족기여	.924**	.313	.247	2.952
	가족기여 만족감	.230***	.048	.347	4.805
$R^2/\bar{R}^2$		.594/.559			
F		16.836***			
D-W		2.106			

* $p<.05$, ** $p<.01$, *** $p<.001$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정신적 장애유형의 성인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집안 일 거들거나 심부름 등의 도구적인 기여나 정서적인 가족기여(김희정, 2000; 이유리, 2008; 이현숙, 2007; Greenberg, 1995; Heller, Miller, & Factor, 1997) 위주로 소극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온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사회활동을 수행하는 성인장애인의 경제적 기여와 가족에 대한 정서적

인 교감 등으로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은 물론 재활의욕도 향상되고(김정옥, 2015), 병약한 고령의 어머니에 대한 일차적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최희경, 2012) 다양한 성인장애인 당사자들과 이들의 적극적인 가족기여 역할을 입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장애 유형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서 장애인의 성인으로서의 가족과 사회적 역할, 역량을 인정해주면서 이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사회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성인장애인을 수동적인 돌봄 대상으로 바라보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점에서 탈피하고 이들 역시 가족에 기여하며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된 연구이다. 그동안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는 이들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개입방안 고안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들 대다수가 이들의 경제활동,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및 탄력성,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다(김미영, 2014; 김정옥·강차선·박정환, 2016; 전명신, 2014; 최희정·이인수, 2009). 즉 장애인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및 유지를 위해서는 실제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과 역량을 강화한다는 논의보다는 이들을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주변 체계 개발, 실행 및 강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사회복지 실천 및 연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는 강점관점 및 임파워먼트 모델과는 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연구의 보편적 관점에서 벗어나 성인장애인의 가족기여 경험을 탐색하고 실제 이들이 지각하는 기여가 실제 이들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전 및 인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인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성인장애인의 가족기여 경험과 그 대상자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과반수가 부모에게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가족기여는 중간값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도구적, 정서적 가족기여는 중간값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감과 자기효능감은 중간값 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인장애인의 가족기여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인장애인의 경제적 가족기여, 정서적 가족기여, 가족기여 만족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영구적인 장애로 인하여 가족 내 역할이나 사회적 활동의 제약으로 자기효능감은 낮을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이다. 때문에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성인으로서 고유한 역할과 역량을 지닌 긍정적인 존재라는 시각의 확대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강조하고 성인기의 생애주기의 특성과 발달과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전제된 다양한 개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성인장애인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아동에 비해 매우 적으며, 그 내용도 정신적 장애 유형의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대인관계 증진이나 사회성 훈련, 단순한 취미나 여가활동 지원 등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다양한 장애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이나 자기효능감과 같은 강점 관점의 개인 상담이나 또래상담, 성인으로서의 가족과 사회적인 역할과 책무 등에 대한 성인기 교육, 동기부여나 긍정리더십 프로그램이 더욱 제공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교육은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부모나 가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처럼 평균 연령이 약 40세의 성인장애인이 부모와 동거율이 높으며 부모 기여가 높은 집단의 특성을 볼 때,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중적인 돌봄이 중요해지는 중·고령기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 건강관리 등의 생애주기 특성화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인장애인의 경제적, 정서적인 가족기여와 가족기여 만족감이 자기효능감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밝혀진 것처럼, 성인장애인의 가족 내 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시키는 개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비교적 직업 활동이 가능한 신체적 장애유형의 성인장애인을 비롯하여 각 장애유형에 적합한 장애인의 직업재활, 일자리 개발과 연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활동이 어려운 성인장애인의 경우 공식·비공식적인 경제적 지원 방안이 더욱 촉구된다. 동시에 최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장애인 부모의 노후준비나 빈곤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재무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성인장애인 당사자에게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성인장애인 즉, 적극적으로 노년기 병약한 부모를 돌보거나, 한 가족의 가장이나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성인장애인에 관한 사례는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당사자나 적용 사례들의 소개를 통해 성인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질을 스스로 향상시키고 즐길 수 있는 대안 마련과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접근성과 개별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속 가사활동에서부터 병약한 부모의 수발이나 어린 자녀 양육 등과 같은 심층적인 돌봄 기술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장애인 멘토나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가정방문 형태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유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는 일부지역에서 유의 표집된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다양한 성인기의 연령층과 장애유형과 특성, 직업 유형 등의 상태가 세분화되지 않은 적은 수의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추후 이를 반영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인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가족기여 관련 변인들이 포함되지 않아 연구모형의 포괄성 부분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보다 다양한 대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많은 관련 변인들이 질적, 양적인 연구방법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기효능감이 아동·청소년기를 거쳐 형성된다는(최희정·이인수, 2009) 점을 볼 때, 성인장애인의 성장 경험 및 가족 내 경험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도 추후 검증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장애인의 보상과 기여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다루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인장애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여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어 호혜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성인장애인과 가족구성원들 간에 제공되는 보상과 기여가 함께 고려되어 호혜성에 대한 보다 정치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상경. 201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경기도: 나남출판.
- 고제훈·김종미·김호진·김성천. 2015. 『2015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개발원.
- 고제훈·김호진·김성천·양수정·최종철. 2014. 『201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김고은. 2010. “성인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노년기 어머니의 돌봄 만족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문근. 2009a. “상호작용경험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역정신건강서비스 기관에서 역할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문근. 2009b. “역량강화적 상호작용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3. 5-35.
- 김미영. 2014. “정신장애인의 동료지지행동이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8(1). 53-79.
- 김석진·강유석·한동기·양한나. 2008. “신체활동참여 및 장애등급에 따른 뇌성마비장애인의 신체적 자기개념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6(3). 25-45.
- 김정은·조태홍. 2015. “돌봄 역할의 전환과 교환: 성인장애인의 기여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홍근·허준기 외 편. 『장애의 재해석』. 서울: 한국장애인재단
- 김정옥. 2015.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자기효능감.”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강차선·박정환. 2016.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자기효능감.”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6). 140-146.
- 김정은·최해경. 2015. “돌봄 대상자의 기여 요인이 가족 돌봄 노인의 돌봄 부담감과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2). 123-150.
- 김학령. 2001. “정신장애인과 가족이 인지한 정신장애인의 가족 내 기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 2012. "Understanding and Explaining Poverty Among the Elderly in Korea From Two Theoretical Perspectives: Conflict Theory and Social Exchange Theory."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1. 73-91.
- 김희정. 2000. "정신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원의 스트레스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병선·진혜민·최병태·김이영·송영달·우성희·박경진·이주희·배성우. 2014. "사회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5(3). 107-128.
- 박현숙·배성우·김이영. 2008.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5). 704-711.
- 송근영·정연택. 2011. "복합운동참여 활동이 다운증후군 지적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 10(3). 177-195.
- 신유리·김경미·전정식. 2012. "생애사를 통해 본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세대의 영역별 배제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19(9). 65-86.
- 양숙미. 2000. "정신지체 성인자녀의 부모를 위한 역량강화 집단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정빈·이종환. 2011. "지역사회 성인중도장애인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및 재활동기 간의 인과관계 모형분석." 『보건사회연구』. 31(3). 223-250.
- 이영미. 2014. "장애인가족의 돌봄 스트레스와 가족적응성과의 관계에서 조부모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5. 59-81.
- 이원남·김경신. 2017. "발달장애 성인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가족탄력성,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4). 27-50.
- 이유리. 2008. "주보호제공자가 인지한 정신장애인의 기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리·최희철. 2017.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1). 229-241.
- 이은미·백은령. 2010. "지적장애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경험 및 지원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 4(2). 63-91.
- 이인정·최해경. 200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경기도: 나남출판.
- 이현숙. 2007. "정신장애인이 가족원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가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인택. 2012. "장애인의 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희·최영. 2011. "가족탄력성이 성인 발달 장애인 형제자매의 관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

- 연구』. 27(4). 1-24.
- 전영신. 2014. “정신의료기관에 입소 중인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장애인복지학』. 26. 5-26.
- 조현미·최은정. 2017. “정신장애인 주보호자의 가족부담감, 회복탄력성, 영적안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6(3). 226-237.
- 최명민. 2004. “정신장애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임파워먼트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56(3). 89-112.
- 최희경. 2012. “노부모를 돌보는 아들의 돌봄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55. 7-32.
- 최희경·이인수. 2009. “가족탄력성이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2). 175-194.
- 한국노년학포럼 엮음. 2010. 『노년학 척도집』. 서울: 나눔의 집.
- 홍주희·이숙향. 2017. “장애와 빈곤의 이중위험을 경험하는 장애인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지원방안 고찰.” 『특수교육』. 16(4). 113-142.
- Bandura, Albert 저. 윤운성·정정옥·가경신 역. 2004.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 서울: 학지사.
- Berscheid, E., & Walster, E. 1969. *Interpersonal Attraction*. MA: Addison-Wesley.
- Blau, P. M.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Byrne, J. J. 1971. “Systemic analysis and exchange theory: A synthesis.” *Pacific Sociological Review*. 14(2). 137-146.
- Call, K. T., Finch, M. A., Huck, S. M., & Kane, R. A. 1999. “Caregiver burden from a social exchange perspective: Caring for older people after hospital dischar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3). 688-699.
- Finch, J., & Mason, J. 1993. *Negotiating Family Responsibilities*. London, England: Routledge.
- Grant, G., & Ramcharen, P. 2001. “Views and experience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14. 364-380.
- Grant, G., Ramcharan, P., McGrath, M., Nolan, M., & Keady, J. 1998. “Rewards and gratifications among family caregivers: towards a refined model of caring and coping.”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2. 58-71.
- Greenberg, J. S. 1995. “The other side of caring: Adult children with mental illness as supports to their mothers in later life.” *Social Work*. 40. 414-423.
- Greenberg, J. S., Greenley, J. R., & Benedict, P. 1994. “Contributions of person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to their families.”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45. 475-480.
- Greenberg, J. S., Seltzer, M. M., & Greenley, J. R. 1993. “Aging parents of adults with

- disabilities: The gratifications and frustrations of later life." *The Gerontologist*. 33(4). 542-550.
- Hastings, R. P., Beck, A., & Hill, C. 2005. "Positive contributions made by children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in the family: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9(2). 155-165.
- Heller, T., Miller, A. B., & Factor, A. 1997.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as supports to their parents: Effects on parental caregiving appraisal." *Mental Retardation*. 35. 338-346.
- Horl, J. 1989. "Looking back to caregiving: Findings from case studies in Vienna Austria."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4. 245-256.
- Joan, C. Toronto 저. 김희강·나상원 역. 2014. 『돌봄 민주주의』. 아포리아.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Lustbader, W. (1991). *Counting on Kindness: The Dilemmas of Dependency*. New York: The Free Press.
- Molm, L. D. 1991. "Affect and social exchange: Satisfaction in power-dependence rel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4). 475-493.
- Pruchno, R. A. 2003. "Enmeshed lives: Adult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aging mothers." *Psychology and Aging*. 18(4). 851-857.
- Seltzer, M. M., Greenberg, J. S., Krauss, M. W., & Hong, J. 1997. "Predictors and outcomes of the end of co-resident caregiving in aging families of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or mental illness." *Family Relations*. 46(1). 13-22.
- Sieber, S. D. 1974. "Toward a theory of role accumul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4). 567-578.
- Thoits, P. A. 1983. "Multiple ident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formulation and test of the social isolation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74-187.
- White, J. M., & Klein, D. M. 2008. *Family Theorie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Abstract>

Perceived contributions and self-efficacy of the adults with disability

Kim, Jeong Eun

(Lecturer, Dept. of Social Welfa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o, Sangeun

(Associate Research Fellow, Office for Policy Researc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Kim, Hyeme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Cho, Tae Heung

(PhD Student, Dept of Welfare and Theology, Pai Chai University)

Perceptions of contributions to family life and self-efficacy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explored in this study. A total of 128 adults with disability aged 19 and over living in and near Daejeon city participated in the survey. A multiple regression was employed in the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ose who perceived themselves as helpful to their family tended to rate their efficacy higher, providing an empirical ground for the need for a change in society's percep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More specifically, those who perceived themselves to make meaningful financial, emotional support to their family reported a higher level of self-efficacy, and those who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contributions also had a higher self-efficacy than their counterparts. Th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the disabled individuals as capable members of family who can make meaningful contributions to family and society, and also note that such experiences bring positive impact on their lives as well.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theory are also discussed.

Keyword: Adults with disability, contributions to family, self-efficacy

논문 투고일: 2017년 12월 29일

심사 완료일: 2018년 02월 09일

게재 확정일: 2018년 02월 09일

저/자/소/개 김정은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충남대학교,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
관심 분야: 노인과 장애인복지, 가족돌봄과 자기돌봄

저/자/소/개 조상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관심 분야: 고령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삶의 질, 행복, 국제기능건
강장애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의 국내 장애인복지 영역으로의 적용

저/자/소/개 김혜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인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
관심 분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건강궤적, 건강문해력

저/자/소/개 조태홍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박사과정
(사)한국장애인연맹 대전DPI 대표
관심 분야: 중증장애인, 고령장애인 복지